

#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사람의 눈과 카메라 눈의 차이점

사진은 사실과 진실이 함께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장된 표현을 보여준다. 그것은 렌즈에 따른 대상의 물체들이 변형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건축사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초광각렌즈로 찍힌 사진들은 매우 원근감이 나타나게 보이고 과장된 스케일감을 보여 실제와 다른 건축물로 보인다.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진만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사들은 사진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이용하여 건축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와 카메라의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눈은 살아서 생각하는 인간의 신체의 일부이며 렌즈는 기계의 일부이다.

인간의 눈은 선별적이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만을 보고, 렌즈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물체를 보기 때문에 시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므로 촬영을 할 때에는 가장 중점적인 피사체에 70%, 그 외의 배경에 30%정도의 배분



1.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내부 중앙에서 바라본 모습

으로 관찰하여 촬영을 해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화면정리를 할 수가 있다.

-사람의 눈은 두 눈으로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데 비해, 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평면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입체감이 부족한 사진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입체감을 잘 살릴 수 있는 요소에는 빛과 그림자의 콘트라스트, 원근감, 심도의 범위 등이 작용한다.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면 실제 촬영에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눈은 화각, 크기, 심도 등이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의 렌즈는 여러가지의 렌즈를 교환하여 아주 좁은 범위에서부터 180° 이상의 화각까지 보여 줄 수도 있고 먼 곳의 피사체를 원하는 크기로 선명하게 촬영할 수도 있다.

-사람의 눈은 순간적인 조절작용에 의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렌즈는 초점을 맞추면 그 평면 위의 물체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 외의 것들은 희미하게 나온다. 이런 특성은 조리개의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이면 선명한 범위가 깊어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열어주면 얇아져서 주제를 강조시킬 수가 있다.

-사람의 눈은 빛의 밝기에 따라 홍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항상 피사체를 적당한 밝기로 볼 수 있지만 렌즈는 빛의 밝기에 따라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순응성이 있어서 광원이 변하더라도 본래의 색상으로 보지만, 렌즈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당한 필터를 사용하여 색상을 보정해야 한다.

-사람의 눈은 광범위한 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만을 감지하는

데, 사진은 가시광선 외에 약간의 불가시광선까지도 감지하여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현상까지도 볼 수 있게 해준다.

-눈과 렌즈의 시각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촬영을 할 때에는 좋은 사진을 얻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즉 실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하지 못 할 것이다. 실제로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사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촬영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촬영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사실적 모습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 카메라의 선택

건축사진은 소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사진에서 요구되는 것은 디테일이나 재료의 질감 등을 정밀하게 묘사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대형 건물들과 같은 현대 건축물들을 촬영할 때 일반 카메라로는 할 수 없는 상·하, 좌·우로 조사가 용이하여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여 줄 수가 있다. 또한 그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입체감과 볼륨, 스케일감과 같은 양감을 표현 할 수 있다. 대형 카메라는 4인치×5인치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다. 전문 건축사진가들은 주로 4인치×5인치 판 대형카메라를 주로 사용한다.

대형 카메라에는 필드(Field)형과 뷰(View)용이 있다. 풍경사진이나 예식장과 같은 곳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필드(Field)형이지만 건축사진에서는 뷰(View)카메라가 필수적이다.

뷰 카메라의 특징은 상·하(Shift)조작이 가능하므로 현대 건축물들을 찍고자 할 때 와이드 렌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카메라로 찍으면 건물들이 아래는 넓고 위는 좁아지는 듯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데 대형 뷰(View) 카메라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조절할 수 있어 건물을 실제의 모습으로 찍을 수 있다. 쉬프트(Shift)라는 것은 카메라의 조절기능을 전·후, 좌·우, 비스듬히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장치이다. 쉬프트 조작의 효과는 카메라의 앵글이나 위치를 바꾸지 않고 피사체의 촬영범위를 이동할 수 있고 선의 콘트럴에 의해 형상이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또한 소형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가 결정되면 그 카메라의 전용렌즈가 정해지지만 대형 카메라의 경우는 카메라와 전혀 관계가 없이 많은 종류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다. 건축사진에 필요한 렌즈를 선택할 경우 초점거리나 밝기 그리고 그 카메라에 대한 렌즈의 적합성이나 쉬프트 조작에 필요한 넓은 이미지 서클이 요구된다. 같은 초점거리의 렌즈에서도 그 타입이나 구성이 다르면 묘사 특성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크고 넓은 복잡한 피사체인 건축물을 촬영할 경우 어떠한 렌즈를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결정에 의해 화각, 심도, 밝기, 사프니스, 컬러 밸런스 그리고 쉬프트까지 크게 관계되어 진다. 이와 함께 건축사진의 피사체들은 정지된 상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고려하여 기재 선택에서는 기동성이 있으면서 가벼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



3

- 2. 루이스 칸의 김벨미술관 외부 중정에서 빛과 공간의 조화를 만들어 본다
- 3. 건축과 자연의 조화에서 빛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이 흐르는 모습으로 정적인 건축물과 동적인 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
- 4. 아침 햇살이 비추는 신록사 정자 모습

또한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건물을 찍기 위해 대형 특수카메라인 파노라마 카메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촬영하면 자연과 더불어 넓게 퍼져있는 건물들도 한컷의 앵글안에 찍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카메라들은 일반 아마추어들에게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필름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건축물들의 표현에서 요구되는 질감이나 디테일 등 세부묘사가 쉽다. 그래서 건축물의 공간이나 디테일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형이상 대형카메라를 선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소형카메라로 건축물들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디테일이나 질감의 표현 등 조작방법들이 대형카메라를 사용하여 찍는 것 보다는 매우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축사진의 테마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물체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가벼운 소형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